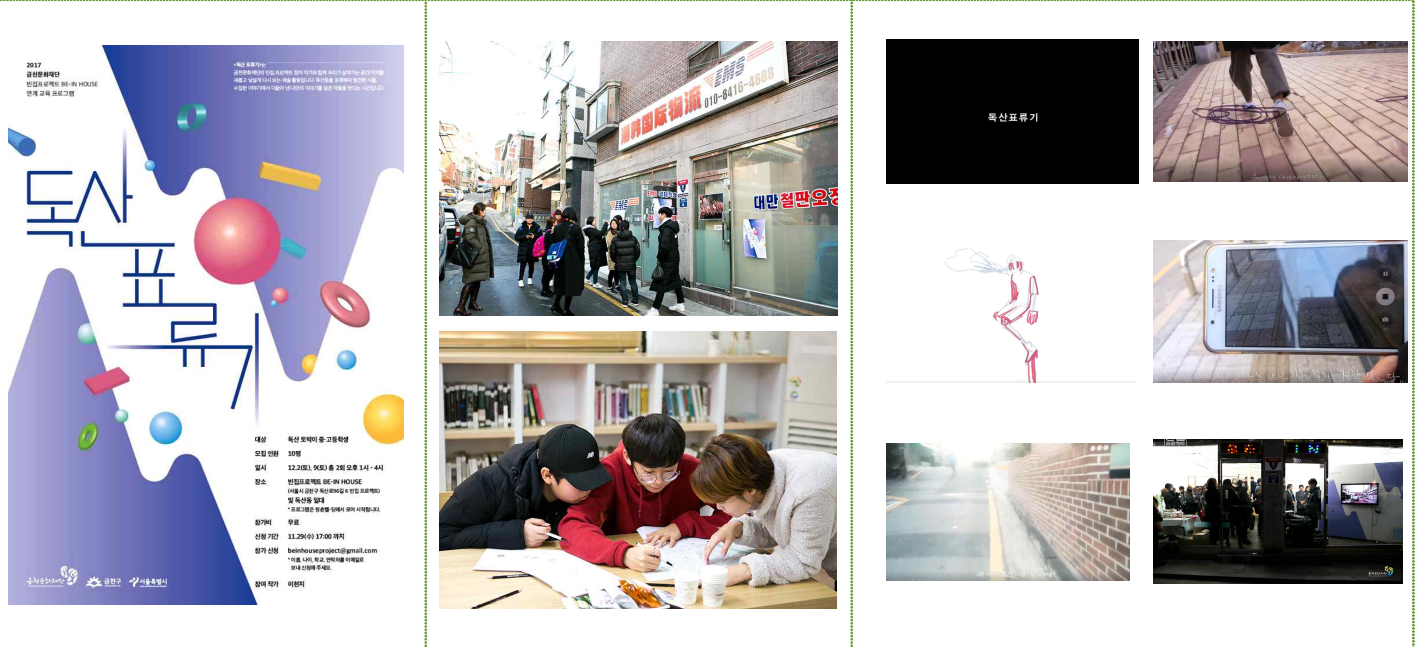


포트폴리오

주요 교육프로그램+개인작업

이현지

주요교육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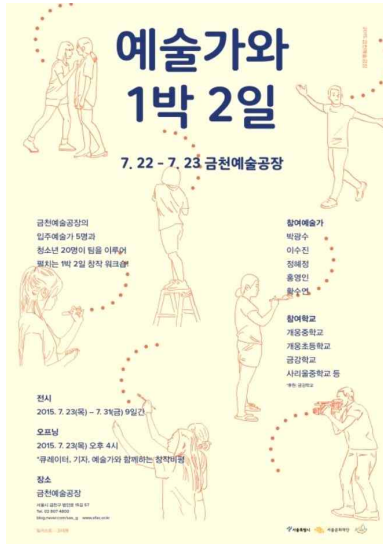
독산동 토박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 공간을 새롭게 낯설게 다시 보는 예술활동이다. 독산동을 표류하듯 새롭게 보며 발견하는 사물, 수집된 이야기에서 이끌어 낸 나만의 이야기가 영상과 드로잉, 설치로 완성된다.



물질의 무게에 대한 궁금증에서 시작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참여 프로그램이다. 핸드폰이 보급되면서 손쉽게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리고, 익명으로 댓글을 달수 있다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사진이란 매체가 사용하기 편리하게 느껴지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이러한 상황들을 똑같이 적용시키되, 사진은 출력이 되고, 가상공간 대신 실제 공간에 실시간 업데이트 된다. 이를 통해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질의 무게가 이미지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본다. 또한 이렇게 모여져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진은 동시대의 풍경이 되기도 한다.

예술가와 1박 2일 (기획)

2014-2015, 서울문화재단(금천예술공장), 서울, 한국



예술가와 1박 2일은 예술가 5명과 탈북청소년 20명이 팀을 이루어 2틀 동안 창작을 하고 전시와 비평까지 이어지는 프로그램이다. 예술가의 스튜디오, 지역 등을 누비며 재료를 구하고 자신과 주변사람들을 관찰하고 돌아보며 작업을 하게 된다. 이렇게 작업된 결과물을 금천예술공장 전시장에서 전시가 되고, 현재 활동 중인 기자, 예술가, 이론가 등의 전문가에게 작품 감상평을 받는다.

아트 포 에브리원 (기획)

2015, 서울문화재단(금천예술공장), 서울, 한국



문화예술 소외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예술을 쉽게 접근하기 힘들지만 예술에 관심이 많은 학생을 대상으로한다. 단기간에 진행되는 체험 프로그램이 아닌 적게는 12주 길게는 24주로 실제로 예술을 깊게 이해하고 다가서는 프로그램이다. 자신이 예술에 관한 미래를 꿈꾸는 학생들이 그 대상이 되며 1:1 혹은 1:10인 이하로 작가와 매칭이 된다. 이 기간 동안 예술가와 함께 예술에 관해서 알아가면서, 자신이 원하는 작업을 하나씩 실행하며 표현해 본다. 청소년들이 실제 꿈꾸는 미래에 실질적으로 다가 설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아티스트 인 스쿨 (기획)

2013-2015, 서울문화재단(금천예술공장), 서울, 한국



지역의 초,중,고등학교와 연계하여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학교로 예술가가 직접 찾아가서 다양한 예술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한다. 기존의 예술교육 방식을 벗어나 예술가들과 함께 하는 예술교육프로그램이다.

문화순회사업(기획 및 참여작가)

2014,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예술가들과 기획자들이 문화 소외 지역의 학교를 순회하며,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완도군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우리동네 보물찾기 프로그램은 등하교길에서 발견한 사물을 가지고 그 안에 담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평소에 자주 앉아 있는 벤치와 테이블에 지도를 직접그려 배치해봄으로써 익숙하게 매일 보았던 풍경을 새롭게 다가서는 기회를 갖는다.

나는 물질을 정지된 형상이나 대상이 아닌 반응하는 '사건'으로 이해하고 작업을 하고 있다. 나의 작업은 결과물을 계획하고 만들어지는 의도적인 행위가 아닌,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활동이다. 길을 가다가 눈에 띄는 오브제를 채집하는 것은 나의 오랜 습관이다. 이렇게 채집된 오브제들은 손에 쉽게 잡히는 크기와 들수 있는 무게, 생활에서 쉽게 보이는 친근한 재료들이라는 공통점이있다. 이를 다양한 관점으로 나와 동일한 위치에서 상호작용을 하다보면 우리가 본래 알고 있던 오브제의 상징성을 사라지고 형태와 물질성만 남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마치 오브제의 정보가 전혀 없는 사람의 시선으로 오브제를 보는 것이 가능해진다. 나를 포함한 이 모든 요소들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서로의 관계를 집중시키며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이러한 모습은 물질의 존재의 '이유'가 아닌 존재 자체를 바라보게 되고 이 모습은 가장 자연스럽게 현실적인 모습일지도 모른다. 이들은 거시적으로 보면 모든 요소들이 정지된 상태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미시적으로 보면 끊임 없이 반응하는 '사건'으로서 읽히게 되는 것이다.



Untitled 타일, 구슬, 찻농, 가변크기,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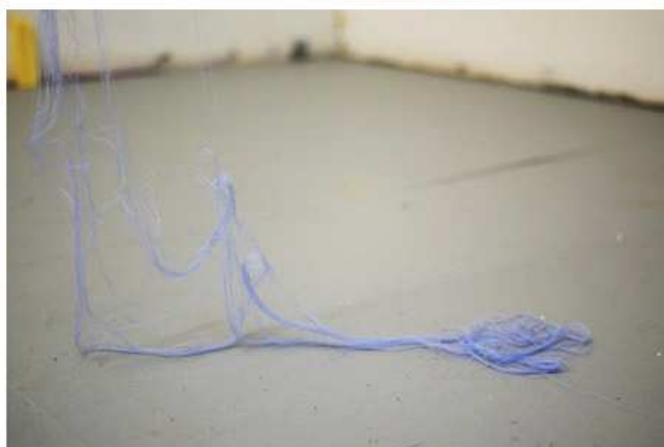


가는 바람 오아시스, 유리, 벽돌 등, 가변크기,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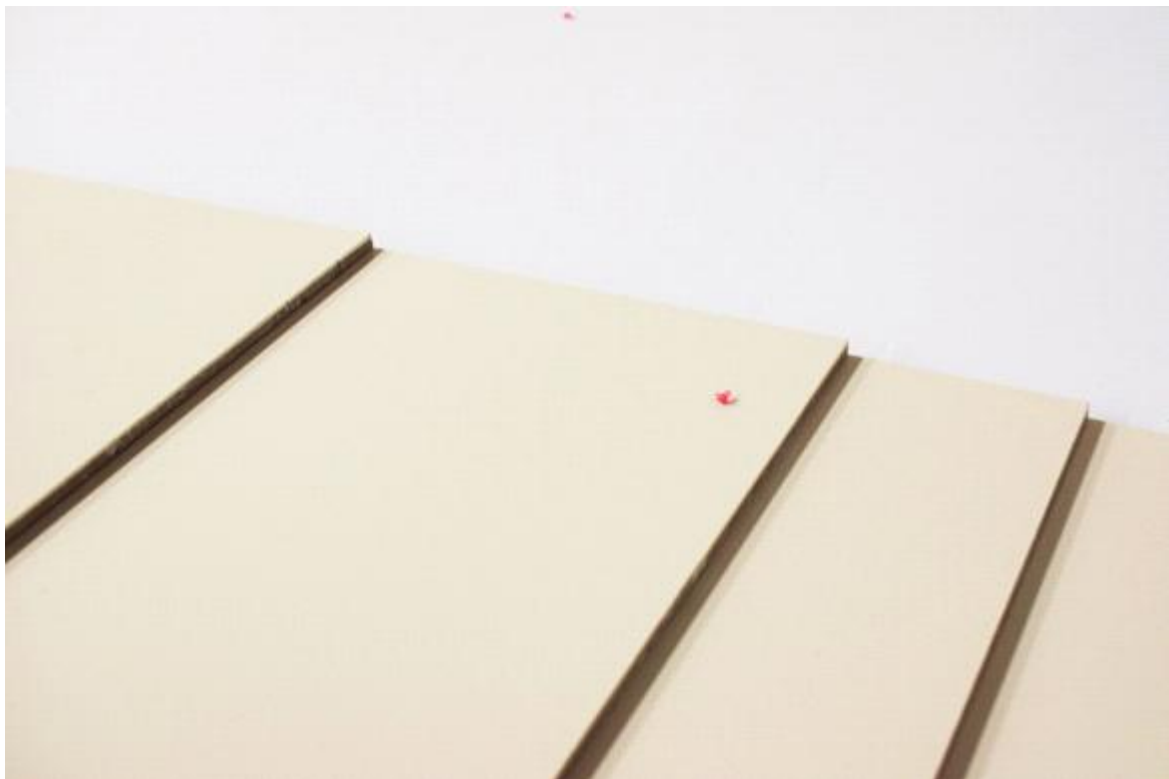


사물들 자갈, 실, 라이트 등, 가변크기, 2018





언덕과 기류 타일, 초, 고무, 가변크기 ,2017





한 개의 빛, 한 개의 하늘 벽돌,그물,색찰흙,인공해초,등, 가변크기 ,2016





빛나는 것들, 비디오 9분 2초, 2018



빛나는 것들, 철공, 연필, 종이, 420x594mm 2018